

한중FTA 이후 중국 해외건설업의 규제실태와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A Study on Regulations and Strategies for Increasing the Chinese Construction Market Share post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Kim, Myeong-soo*

¹Department of Economic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difficulties of enterprise activities in Chinese construction market by surveys on early entrant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This study also suggests future strategy to enter the market by using inducement coefficient model.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in China are under heavy pressure to maintain requirement of licenses, despite recent deregulation. They are in dire predicament for market entry due to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System. It is almost impossible to participate in public projects and also it is not easy to do PPP project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more efforts to solve those issues through negotiations in FTA and GPA. For future expansion in Chinese construction market, it is highly recommended to boost cooperation models between Korea and China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of inducement coefficient model. Korean companies should collaborate with Chinese companies in some fields: smart city, environment and water treatment. Also,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Korean companies by diplomatic means such as requesting for further opening of China's market. In GPA or GATS negotiation, Korean government should ask Chinese government that Korean companies can obtain order independently (without joint venture with Chinese companies) in China. Lastl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participate in construction projects order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ADB, AIIB.

Keywords : Construction Market in China, Foreign Direct Investment, Mutual Corporation Model,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이후 세계 최대 건설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2015년 건설시장 규모가 약 2조 9천억 달러로 전 세계 건설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Han et al. (2013)은 국가별 건설시장규모 평가에서 중국을 가장 높은 순위로 평가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내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건설업체에 대한 참여 제한 등으로 우리 건설기업의 중국시장에서 수주실적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한중 FTA가 2014년 체결되어 2015. 12부터 발효되면

서 건설부문에서도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건설면허 관련 제도가 개정(2015. 11)되고 중국 정부가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활성화를 천명하면서 내외적 환경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 건설기업의 중국 건설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외상투자제도를 비롯한 중국의 규제 등으로 중국 건설시장진입이 쉽지 않은 여건을 어느 정도는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중 FTA (Free Trade Agreement)의 경우 2015년 12월 발효된 것은 상품에 관한 것이며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한중 FTA는 2018년 1차 후속협상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¹⁾ 이

* Corresponding author: Kim, Myeong-soo, Department of Economic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E-mail: mskimcuk@catholic.ac.kr
Received March 6, 2018; revised June 11, 2019
accepted July 3, 2018

1) 한중 FTA 후속협상은 서비스와 투자분야에 자유화를 위한 협상으로 지난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 FTA 본협상은 발효된 후 2년 이내 개시를 선언하고, 개시를 선언한 이후 2년 이내에 타결되도록 약속되어 있었다. 사드 보복의 약화로 2017년 12월에야 개시가 선언되었고, 이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 협상이 18.3.22~23 서울에서 처음 열려 기본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같은 중국건설시장 여건 변화는 우리 건설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현지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건설업체들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설문분석하고 중국 해외건설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중국시장의 개괄적 소개나 건설정책 동향 파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정 시공과정의 리스크 관리 등도 분석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건설시장에 진출하여 현재 활동 중인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롯한 최근 여건변화에 따른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전 논문들과는 차별화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중국 내 건설 관련 제도 변화 등은 시공부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해 활동 중인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통해 업체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건설기업들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중국 건설시장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중국건설시장의 규제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건설시장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3 기존 연구 고찰

현재 중국건설시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2007)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당시 중국건설시장의 현황 및 건설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외국기업의 진출현황과 진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언했다. Lim (2011)은 최근 항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중국 동북지역의 수륙 연계형 인프라 건설에 주목하여 현재 중국정부가 주변국과 협력하고 있는 기회를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Roh et al. (2015)은 뉴노멀시대에 따른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경제정책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의 중국 인프라 시장에서의 진출방안 마련을 강조하였다.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6)에서는 지난 과거 10년간 및 향후 중국 인

프라시장을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한국건설기업의 중국 건설시장에서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거시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Jang et al. (2009)은 중국 건설 시장에 진출한 국내 CM 회사 소속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건설시장 진출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였다. Liu et al. (2014)은 해외 건설기업이 중국 건설시장에서 직면하는 제도적 리스크 인자를 3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Liu et al. (2015)은 현재 중국에서의 국내기업 발주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WBS (Work Breakdown Structure) 및 RBS (Risk Breakdown Structure)기법²⁾을 적용한 설문 방식으로 최근 국내기업이 중국 내에서의 건설사업 참여 시 입찰 단계에서 관리해야 하는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Yu (2016)는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계획에 주목하여 이 사업에 한국 ICT 기업 및 건설기업이 해당 사업에 진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Zhao (2016)는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추진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한국기업의 활용 전략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 사례연구로 Lee and Choi (2010)는 청두 제6정수장 BOT (Build Own Transfer)사업과 상하이 다창 정수장 BOT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중국내 외국인 BOT 수처리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Yang (2015)은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와 FTA 등 국제협정을 통한 중국건설서비스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전체 중국시장 및 리스크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수의 논문에서 구체적인 건설단계 또는 시공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건설시장의 현황 및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거시적 데이터만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대부분이다. 일부 미시데이터 및 설문자료에 기반한 연구는 리스크에 관한 것이며, 일부는 특정 공사의 시공단계에 국한된 내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여건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건설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애로사항과 면허제도, 외상투자제도, PPP 등의 변화에 따른 최근 시장 여건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WBS (Work Breakdown Structure)는 프로젝트의 범위와 최종산출물을 세부요소로 분할한 계층적 구조, 즉 작업분해도를 의미하며 RBS (Risk Breakdown Structure)는 각 프로젝트 수행 시 예상되는 리스크를 분해하여 나타난 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RBS의 측면에서는 건설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예상되는 대내외적 리스크 및 기회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중국 건설시장과 실태

2.1 중국 건설시장

IHS의 Global Insight에 따르면³⁾ 중국 건설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약 2.9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건설시장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중국은 2009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건설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GDP 대비 건설서비스 비중은 6.8%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시장 규모는 '13년과 '14년 각각 약 2조 6,081억불, 2조 8,679억불을 기록한 가운데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교통 및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서민 주택건설 등의 건설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과 유럽을 연결시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주창하면서 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을 주도하였고,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에서의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2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실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중국에서의 건설 활동은 최근 중동 등에서의 활발한 해외건설 수주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외국 건설업체에 대한 자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탓에 우리 건설기업의 활동이 저조한 이유가 가장 크다. 그 밖에 중국 내에서의 까다로운 건설면허 취득 조건, 현지법인 설립 절차, 중국 외에서의 실적 불인정 등 다양한 진입장벽이 건설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중국시장에서의 수주액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총 해외 수주액 중 중국의 비중은 2009년 1.7%에서 2015년 3.3%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후 최근까지 그 비중은 줄어들었으며, 2017년 기준 0.8%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1. Sum of contract by year

(USD10,000, %)

Year	Sum of contract in world market	Sum of contract in China	Ratio (%)
2009	49,147,869	816,317	1.7
2010	71,578,807	603,928	0.8
2011	59,144,314	1,057,658	1.8
2012	64,880,678	1,563,259	2.4
2013	65,211,657	536,912	0.8
2014	66,009,930	793,376	1.2
2015	46,144,348	1,512,048	3.3
2016	28,192,311	640,715	2.3
2017	29,005,997	244,845	0.8

* Source: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formation Service

중국 건설시장에서의 외국건설기업 현황을 보면 중국은 중국 건설회사와 외국 유명 건설회사와의 합작기업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외국기업의 시장잠식을 우려하여 중국 자국 건설기업들을 보호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즉,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개방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업체가 담당하기가 어려운 프로젝트나 중국업체와 합작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건설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다.⁴⁾

3. 중국 건설 규제실태와 시장진출 관련 조사 분석

3.1 설문조사를 통한 공사수주 애로요인 분석

중국건설업 관련 규제와 우리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중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⁵⁾ 중국 건설시장에 진출해 있는 건설업체들은 조사 당시(2015. 10) '한국 건설업체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친목단체를 결성하고 있었으며 모두 18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설문 및 면담에 응한 기업은 11개 업체이며, 조사항목에 따라 대체로 8~9개 정도가 유효하였다.⁶⁾ 조사를 위해 먼저 메일로 설문을 배포하고 응답을 받은 뒤, 각 설문응답자와 중국으로 통화하여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현지로 가서 직접 담당자와 면담하면서 추가적인 사항을 파악하였다.

설문 및 면담에 참여한 기업들의 2014년 매출액은 총합 약 25억 위안, 평균 3.6억 위안이며 건수로는 평균 약 20건의 공사(한국사업자 발주공사 평균 19건, 중국기관 발주공사 평균 14건)를 수주하였다. 조사 대상기업 중 중국 현지에 가장 빨리 진출한 기업은 1993년, 가장 늦게 진출한 기업은 2009년에 진출하였고 평균 2001년경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1990년대에 진출한 기업도 있지만, 과반수는 중국이 급속한 발전을 이룬 2000년대에 중국에 진출한 셈이다.

위 기업들의 주요 사업 분야는 토목(도로), 건축(상업·주거용시설, 하이테크산업공장), 플랜트(석유화학, 제철,

3) www.globalinsights.com 참조

4)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이전에는 완전 외국인소유 기업진출이나 지사의 설립을 제한하였지만, 1998년 이후 지사나 외국인소유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5) 설문지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고, 이후 중국시장 근무경력이 있는 건설업체 종사자 3인 및 전문가 1인에게 pilot survey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함

6) 참여기업이 모든 조사항목에 응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각 질문의 표본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음.

화공, 수처리), 개발사업(도시쓰레기Plant,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인테리어 등의 분야들이다.

3.1.1 면허 요건 유지 부담

중국 정부는 2015.1.1.자로 「건설기업자격기준」을 개정하여 건설 면허 취득 조건을 일부 변경하였다. 먼저 순자산 기준이 1급은 6천만 위안에서 1억 위안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반면, 2급과 3급은 각각 4천만, 800만 위안으로 오히려 하향 조정되었다. 2·3급 건설업에서 자산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의 진출이 다소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엔지니어에 대한 기준도 전체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별 도급한도도 도급금 요건이 자본금의 5배 미만에서 면허 등급별 도급한도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건설업 면허별 등급 요건에 따라 심사 후 자격등급이 상승되는 구조로 바뀌었고 최초 등록 시 최저등급인 3급 건설업 면허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 외에 각 등급별 층수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각 등급의 건축면적, 스펠도 무제한으로 완화되었다.

2015년 1월에 면허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면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식 설문에서 면허유지를 위해 수십명 수준의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프로젝트 수주를 받지 못하거나 중국 협력업체들과 비용을 공유하지 않는 한 상당히 큰 적자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건설업체는 자본금(순자산), 직원 수, 건축사, 중급공정사, 현장관리자, 기술자, 기술자격증 개수, 관련 설비, 엔지니어, 일정 이상의 실적, 현장관리인원의 수, 특정 급수 이상의 기술사, 기능인 적정 인력 수 등의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상급면허일수록 과도한 자본금 및 기술자 수가 증가하고, 공사가 없을 때에도 의무적 고용을 해야 하고, 자격증임대·장비/설비구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건설업체와의 대응방안 협의, 건설위원회에 애로사항 전달, 현지 대행업체에의 위탁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3.1.2 외상투자 제도로 인한 시장진입 애로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이란 중국정부가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장려 혹은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각 업종별로 투자를 장려하는 업종, 제한적 승인 업종, 투자금지 업종으로 구분되며 중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왔다. 1995년 6월 처음 발표된 이후 4차례 수정을 거쳐 2007년 이후 4년 만에 2011년 12월 24일 “新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시행일 2012년 1월 30일)”을 수정 발표하였다.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시공하려면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건설서비스 분야 양허안에 따라 현지 시공법인 설립 후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은 투자위 또는 경제무역위 등에 외국인투자 현지법인 설립신청을 하여 외상투자기업 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 후, 건설업 면허 신청을 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외상투자건설기업 및 외국인투자 건설시공기업으로 등록⁷⁾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분 형태에 따라 독자(100%), 합자·합작기업으로 분류된다.⁸⁾

외상독자건설기업(100% 투자)의 공사도급 범위는 외국인투자·자금공여공사 및 차관공사, 그리고 중국업체 단독수행 곤란공사(高科技공사) 등으로 제한된다. 외상 합자·합작 건설기업의 공사도급 범위는 현지기업과 동일하게 관급공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합자·합작법인은 면허를 새로 신청하여야 하며, 합작의 양 당사자 중 낮은 면허를 적용하게 되므로 실제 공사 수주 시에 또 하나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대형 공공공사 및 국가자금·해외자금 사용 프로젝트는 입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공 공사는 차관공사의 국제 경쟁 입찰인 경우, 회원국이면 누구나 PQ를 거쳐 참여 가능하다. 하지만 공사규모가 큰 경우 또는 자국 업체의 기술로 가능한 경우에는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입찰을 붙여 외국 업체가 수주하더라도 시공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중국내 재원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외국본사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하며, 중국업체와 JV (Joint Venture)로 시공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에야 참여가 가능하다. 즉, WTO 가입 후 외자독자기업(외국 측 100% 지분 현지법인) 설립은 허용되고 있으나 중국내 재원 발주 공사는 외자독자기업의 참여를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기업의 투자 관련 제도로 인하여, 비록 면허 기준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설문조사에서도 현지 진출 업체들은 면허유지의 어려움과 더불어 외국 기업들의 시장진입에 제한을 가하는 외상투자제도의 문제를 큰 애로요인으로 꼽고 있다. 중국에서의 시장 확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2개의 요소는 면허에 따른 수주 제한과 외국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제한으로 나타났다.

7) 기업설립과 자질신청 및 심사비준은 종합면허 1급 그리고 전문면허 1급 기업은 중앙 건설부에서 2급 이하는 지방정부 건설주관 부처가 관장한다.

8) 세부 내용은 관련 법규인 건설부 “건축업기업자질등급표준 건시 [2014] 159호”에서 규정되어 있다.

Table 2. Difficulties on market expansion in China

Response	1 st rank	2 nd rank
Limit on subcontract due to difficulties of license upgrading or keeping	4	1
Prohibiting foreign firms to participate in projects by Chinese finance	3	3
Lack of information about clients and project insights	1	1
Delays on cooperation with concerned ministries		2
Disadvantage in joint venture with local firms		1

3.1.3 한중FTA 등 국제협정 등에 대한 불만족

중국이 현재 가입한 국제협정으로 해외건설과 관련이 있는 것은 WTO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와 한중FTA이다. 하지만 이들 두 협정에서는 대상국에 지사가 없는 업체는 건설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장 개방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WTO GATS에서는 중국 국내기업과 외국 기업이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외국기업은 앞서 언급한 면허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건설시장 진출에 있어서 사실상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WTO GATS협약은 정부조달시장이 아닌 민간시장에만 적용되므로, WTO는 별도로 GPA협정을 통하여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GPA협정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그 효과는 미진한 편이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했으나, 아직 GPA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중 FTA를 통하여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 한중 FTA협상에서는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제외되었다. 지금까지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어떠한 FTA에서도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포함한 경우는 없었다. 한중 FTA에서도 향후 정부조달시장에 관하여 GPA가입 후 협상하겠다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설문조사 결과,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위해 외상투자 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WTO가입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FTA가 중국건설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Table 3. Effect of China's policy change

	Positive		Negative	
	%	Freq.	%	Freq.
Effect of China's join in WTO	22.2	2	77.8	7
Effect of Korea-China FTA	28.6	2	71.4	5

반면, 향후 중국이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한다면 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답이 많았다. 이는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참여 개방, 자국 기업 우선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해석된다.

Table 4. The Effect of China's GPA join to my firm

Effect	A lot	Somewhat	Little
Percent(%)	14.3	57.1	28.6
Freq.	1	4	2

Reason	Partnership	Open in Government ordered project	China's domestic-firm -first policy	Limit on amount of subcontract
Percent(%)	28.6	28.6	28.6	14.3
Freq.	2	2	2	1

3.1.4 PPP를 통한 시장진출 애로

PPP는 민관합작투자 사업을 말한다. 노수연 외(2015)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외국 민간업체들과의 협력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지만,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은 중국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 또는 사업에 대한 자금을 국한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업체들과 비교할 때 이러한 기술이나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한국 업체는 여타 선진국의 건설업체들과 비교할 때 PPP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에서 PPP는 다른 국가의 PPP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중국은 아직 공산국가이므로 상당수의 건설업체들은 국영업체인데 중국 PPP의 일부는 정부와 민간업체간 협력 사업을 의미하기보다는 정부와 중국 지역의 국영건설업체간의 협력사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경우 우리 업체들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설문에서 중국 공공 건설서비스 시장에 있어서 업체들은 재정사업 분야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중국이 가입한 WTO GATS협정 및 한중 FTA에서는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정부조달 챕터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국과 중국 간 정부조달 건설서비스는 개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은 PPP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Table 5. Favorable parts among PPP and Government Finance

Response	%	Freq.
Negative outlook on Public Construction in China	50	4
Joining by PPP as government finance projects are protective parts	37.5	3
no response	12.5	1
Joining government finance projects by relaxing entry regulation	0	0

Table 6. Opinion on strategic use of PPP project

Response	%	Freq.
Not a big opportunity yet because of no detailed one	36.4	4
Watch the situation as lack of detailed guidelines, governmental guarantees, and data on profitability	18.2	2
Active investment on local government PPP	9	1
Seek success model by checking competitiveness on finance, planning, and hi-tech construction type	9	1
Little chance for foreign firms	9	1
Etc	9	1
no response	9	1

Table 7. Difficulties on PPP business

Response	%	Freq.
High risk on investment	42.9	3
Difficulties on getting license	28.6	2
Lack of success examples and guidelines	14.2	1
Market-entry barrier	14.2	1

PPP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수의 업체는 PPP 사업이 큰 기회요인이 아니거나 외국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없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일부 업체는 아직 불확실성이 커서 소규모 투자만을 하고 경쟁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오직 1개의 기업만이 지방정부 PPP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PPP사업 추진에 대한 장애요인이나 애로요인에 관해서는 높은 사업 위험(risk)과 면허조건이 제시되었다. 특히 PPP에 참여하려면 토목분야의 시공면허가 필요하지만, 이 면허를 취득하기가 어렵고 등급을 상향하려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3.2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중국건설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조사도 실시하였다. 관련 연구기관 2인, 오랫동안 중국에서 근무한 건설기업 실무자 2인, 대학교수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심층조사에 참여하였다. 심층조사 결과 주요 내용을 종합·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시장규모와 기회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중국으로의 시장 진출 및 수주가능성은 중국의 어마한 시장규

모와는 별도로 생각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둘째, 관시(关系)를 중시하는 중국의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해야 한다.

셋째, GPA, FTA 등을 통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이 자구적 노력에 힘써야 한다.

넷째, 합작사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기업의 강점과 단점 그리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 전략적 합작이 중요하다.

다섯째, 중국내에서 소규모 공사에도 참여하여 실적을 쌓아 이를 토대로 시장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내에서 여러 규제로 진출이 제한적이므로, 중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제 3의 국가로의 진출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AIBB등의 지원을 받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주물량이 꽤 있을 것이므로 이들 국가에 중국기업과 합작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경제적 유발계수를 통한 중국건설 수주 전략 분석

4.1 연도별 공종별 수주액 추이

본 절에서는 중국 해외건설업의 수주액 특성을 공종별로 파악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전체 해외건설업은 산업설비가 가장 높은 수주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 해외건설업은 건축 및 용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당 수주액이 산업설비와 토목이 다른 공종보다 높다는 점⁹⁾을 감안해볼 때, 중국 해외건설업의 경우는 전체(산업설비, 토목 등)에 비해 소규모 건설(건축, 전기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 수주액의 규모 측면에서는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용역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른 공종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력이 직접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외건설을 통한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다. 추가로 건축공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공종의 다변화 진출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9)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09-2017년 평균 1건당 수주액은 산업설비 454,796천미불, 토목 115,377천미불, 건축 35,260천미불, 전기 20,425천미불, 통신 13,868천미불, 용역 5,864천미불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Ratio amount of Korean construction in China (%)

Year	Civil Engineering	Building	Facility	Electricity	Communication	Service
2009	20.4%	25.3%	11.7%	33.6%	0.0%	9.1%
2010	21.0%	31.8%	40.5%	5.5%	0.1%	1.1%
2011	2.3%	82.7%	7.0%	0.1%	0.0%	7.9%
2012	16.0%	75.5%	5.4%	0.1%	0.0%	3.0%
2013	5.4%	63.4%	26.1%	0.3%	0.0%	4.8%
2014	7.9%	86.3%	0.2%	0.6%	0.0%	5.1%
2015	2.7%	73.0%	19.3%	3.3%	0.0%	1.7%
2016	1.2%	88.7%	2.3%	0.1%	0.0%	7.6%
2017	2.7%	67.3%	10.9%	12.9%	0.0%	6.3%
Total	9.2%	68.4%	12.5%	5.1%	0.0%	4.7%

Table 9. Ratio amount of Korean construction in the World (%)

Year	Civil Engineering	Building	Facility	Electricity	Communication	Service
2009	12.2%	12.8%	72.1%	1.5%	0.0%	1.3%
2010	5.7%	10.8%	80.0%	1.1%	0.6%	1.7%
2011	9.9%	13.3%	73.2%	1.6%	0.1%	2.0%
2012	13.6%	22.1%	61.0%	2.0%	0.1%	1.3%
2013	27.8%	8.4%	60.8%	1.2%	0.4%	1.5%
2014	8.6%	7.5%	78.4%	2.1%	0.3%	3.2%
2015	18.4%	15.4%	57.4%	1.9%	0.4%	6.5%
2016	22.9%	18.9%	47.0%	5.2%	0.0%	6.0%
2017	17.7%	8.3%	68.7%	2.5%	-0.1%	2.9%
Total	14.3%	12.8%	68.1%	1.9%	0.3%	2.6%

4.2 유형별 국내유입비중

앞서 검토한 내용은 단순히 공종별 수주액 규모 측면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국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해외건설업의 경우는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바로 해외로 집행되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건설업의 공사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명수(2012), 도태호 외(2012)에서 접근하였으나, 통상적인 지역 및 공종 구분에 따라 접근하였으며, 중국이라는 개별국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에서 제공한 2008~2010년의 해외건설업체의 준공실적 보고 결과를 활용하여 중국의 해외건설의 특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해당 자료는 전 세계에서 진행된 우리나라 업체의 공사건수 1,118개(중국 169개)에 대한 정보이며, 해당 자료를 통해 공종별, 기업규모별, 수주형태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비용을 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관리비 등으로 세

Table 10. Percentage of domestic inflow

		Total		China	
		Domestic	Foreign	Domestic	Foreign
Total		23.8%	76.2%	15.2%	84.8%
Type	Building	9.8%	90.2%	13.4%	86.6%
	Facility	35.2%	64.8%	35.4%	64.6%
	Service	86.4%	13.6%	62.1%	37.9%
	Electricity	19.0%	81.0%	16.6%	83.4%
	Civil engineering	10.1%	89.9%	7.4%	92.6%
	Communication	38.3%	61.7%	7.8%	92.2%
Firm size	Big	24.6%	75.4%	14.7%	85.3%
	Small & middle	18.4%	81.6%	26.3%	73.7%
Contract type	Main-contractor alone	22.9%	77.1%	14.2%	85.8%
	Main-contractor co-work	26.6%	73.4%	76.0%	24.0%
	Subcontracted firm alone	32.9%	67.1%	1.5%	98.5%
	Subcontracted firm co-work	3.4%	96.6%	-	-

분화하고 있고, 이를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 해외건설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해외건설업의 비용구조는 계약단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고, 공사가 완료된 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검토한 수주액과는 다른 준공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해외건설을 통한 수주액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비중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전체 해외공사의 23.8%만 국내로 유입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15.2%만이 유입되었다. 다만, 공종별로 볼 경우는 건축 및 산업설비, 기업규모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수주형태에서는 원청합작의 경우 중국해외건설의 국내유입비중이 전체 해외건설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축비중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원청단독 위주의 수주형태, 대기업 위주의 진출에 대해서는 원청합작 형태의 계약 및 중소기업의 진출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유형별 경제적 유발계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의 해외건설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한 다양한 경제적 유발계수를 도출하여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유발계수는 3가지 형태로 작성되었다.¹⁰⁾

10) 유발계수 도출을 위한 산업연관효과, 직접유입효과 등의 방법은 M. Kim (2012), T. Do et al. (2012)에서 적용한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였다.

첫 번째로 수출유발계수는 해외건설사업으로 인한 국내수출액(해외건설 국내유입분 중 중간투입액)의 산업연관효과를 수출액(해외건설 국내유입분 중 중간투입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건설을 수행할 때 해외에서 국내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발계수로서 이 값이 클수록 수출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text{수출유발계수} = \frac{\text{산업연관 효과}}{\text{수출액}}$$

두 번째로 국내유입유발계수는 국내수출액으로 인한 산업연관효과와 직접유입효과를 더한 총 효과를 해외건설사업을 통한 국내유입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해외건설사업의 국내유입액을 대상으로 해외건설 수출액에 따른 유발효과와 국내에 직접 유입(인건비+영업이익)되는 효과를 포함(총 효과)한 유발계수로서, 이 값이 크면, 해외건설을 통한 순 국내유입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text{국내유입유발계수} = \frac{\text{산업연관효과} + \text{직접유입효과}}{\text{국내유입액}}$$

마지막으로 해외건설유발계수는 국내유입유발계수 산정시 계산된 국내수출액으로 인한 산업연관효과와 직접유입효과를 더한 총 효과를 준공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해외건설사업의 국내와 해외에 지출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준공액(사업비) 대비 국내유입 유발계수에서 사용된 총 효과에 대한 원단위(유발계수)이다. 따라서 본 유발계수가 해외건설을 통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의 값이 클수록 해외건설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text{해외건설유발계수} = \frac{\text{산업연관효과} + \text{직접유입효과}}{\text{준공액}}$$

세 가지 유발계수들을 보면, 수출유발계수는 통상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발계수들과 비교가 가능하나, 수출액(중간투입액)만을 대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해외건설업의 전반적인 효과를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유입유발계수는 해외건설 중 국내유입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직간접효과를 모두 포함한 장점은 있으나, 해외건설의 국내유입분을 알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해외건설유발계수의 경우 국내경제에 효과가 없는 해외부분까지 포함된 준공액(사업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발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으나, 해외건설 준공액(사업비)을 수출

액(중간투입액), 국내유입분으로 구분할 필요 없이 지역별 해외건설 준공액(사업비)만 알면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유발계수라 할 수 있다. 유발계수들의 크기는 수출 유발계수, 국내유입 유발계수 보다는 해외건설 유발계수가 작게 나타나게 된다. 해외건설 유발계수가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해외로 지출된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먼저 국내 중간투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수출유발계수의 경우, 생산유발계수는 대기업 및 원청합작, 부가가치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중소기업 및 원청합작이 크게 나타났다. 둘째, 국내유입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유입유발계수의 경우, 생산유발계수는 중소기업 및 원청단독,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대기업 및 하청단독, 고용유발계수는 중소기업 및 원청합작이 크게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지출을 모두 고려한 해외건설유발계수의 경우, 생산유발계수는 중소기업 및 원청합작, 부가가치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중소기업 및 원청합작이 크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의 경우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 측면에서는 기업 규모별, 수주형태별로 각 계수별 크기가 혼재되어 있지만 해외건설유발계수에서는 중소기업, 원청합작의 계수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용유발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원청합작이 모든 계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¹¹⁾

Table 11. Firm size and production induction coefficient in China

		Export	Domestic inflow	Foreign construction
Total		2.070	1.185	0.180
Firm size	Big	2.071	1.177	0.173
	Small & middle	2.064	1.280	0.337
Contract type	Main-contractor alone	2.070	1.197	0.170
	Main-contractor co-work	2.094	1.053	0.801
	Subcontracted firm alone	0.000	1.000	0.015

Table 12. Firm size and value-added induction coefficient in China

		Export	Domestic inflow	Foreign construction
Total		0.647	0.939	0.143
Firm size	Big	0.646	0.941	0.138
	Small & middle	0.650	0.908	0.239
Contract type	Main-contractor alone	0.646	0.935	0.133
	Main-contractor co-work	0.660	0.984	0.748
	Subcontracted firm alone	0.000	1.000	0.015

11) 공종별로는 각 유발계수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공종별 가중평균 구조로 유발계수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Table 13. Firm size and labor induction coefficient in China

		Export	Domestic inflow	Foreign construction
Total		1.057	0.421	0.064
Firm size	Big	1.053	0.308	0.045
	Small & middle	1.093	1.728	0.455
Contract type	Main-contractor alone	1.057	0.358	0.051
	Main-contractor co-work	1.076	1.128	0.858
	Subcontracted firm alone	0.000	0.932	0.014

결국, 중국 해외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와 원청합작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진출활성화 방안

5.1 한·중 업체간 협력모델 활성화

앞서 유발계수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원청합작의 경우가 가장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설문에서도 사업추진 시 협력모델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협력을 하더라도 재정사업의 경우 시장진입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하므로, PPP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설문 및 심층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에 따르면, 한국업체가 중국업체 또는 여타 해외업체와 비교해서 결정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극히 제한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Table 14. Promising business model in China

Response	%	Freq.
Development business or PPP with finance	50	4
Korea-China co-work package model /cooperation in obtaining order with Chinese firm	37.5	3
Joint Venture with Chinese firm in construction	12.5	1
Specialization in not-construction part	0	0

Table 15. Promising business part when cooperating with China

Response	%	Freq.
Eco-friendly, Housing waste disposal	33.3	3
Smart city	33.3	2
Energy	22.2	2
Special construction	11.1	1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중국 PPP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현재 진출업체들이 가진 면허로 참여가 가능한 공사 건축 상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토목면허 등 기타 면허를 취득하여 교통 인프라 등의 사업에 진출을 검토하고자 제안하였다. 또 한국정부기관 주도 하에 한국 건설사 연합으로 사업성이 있는 PPP 프로젝트에 공동참여를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등 기존 PPP 프로젝트가 아닌 사업도 제안하였다. 한국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업체들도 중국 금융과 합자 또는 투자하여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5.2 국제협정과 협상의 적극적 활용

향후 WTO GATS 및 GPA협상에서 적극적인 시장 개방이 요구되어야 한다. WTO GATS에서는 중국 국내기업과 외국 기업이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외국기업은 면허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중국 건설시장 진출의 장벽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향후 중국이 가입할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모두 개방을 요구하며, 가능하면 중국의 양허한선이 한국보다 낮은 여타 국가들의 수준으로 개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합작 요구조건이 포함되지 않고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협의해야 한다. 법과 규제 투명성 조건, 입찰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여타 회원국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양준석(2015)은 향후 GPA협상에서는 시장개방 및 입찰기회와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한중FTA에는 정부조달 부분이 제외되어 한계가 있다.¹²⁾ 다만 사드배치 문제로 지연된 한중 FTA의 서비스 투자 부문 협상이 2018년 3월 처음 재개되어 전체 산업의 일반적인 투자 여건에 대한 개선은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리 업체들이 외교적 노력이나 국제협약을 통하여 개선하고 싶은 가장 많은 요구 사항은 시장개방이다. 즉, 협상을 하지 않아도 중국 국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고, 이는 국제 통상협상에서 다루는 전통적 주제이다.

또한 가장 많은 요구사항 중 하나는 한국 건설업체가 중국 내에서 면허를 신고할 때나 입찰 경쟁을 할 때 중국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시공실적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는 중국 내에서의 시공실적만이 인정되고 있으

12) 이는 <Table 1>에서 보듯이 중국에서의 수주실적이 2015년 이후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향후에는 한국이나 제3국에서의 시공실적도 중국내 시공실적과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외 한국 업체와 중국업체의 동등한 대우, 그리고 면허유지 비용의 감소, 불필요한 규제 감소, 중국 재원으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참여 등도 있었다.

Table 16. Institutional barriers which should be improved by diplomacy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Response	%	Freq.
Acknowledgement of records and experts in Korea or 3rd country	28.6	5
Equivalence b/w Korean and Chinese firms	28.6	5
Relaxing requirements of experts in license	14.3	3
Relaxing unnecessary administration	7.1	2
Permission on joint venture in Chinese finance project	7.1	2
Joining PPP	7.1	1
Packaging whole city and join by Korean firms	7.1	1

5.3 건설기업의 자구적 노력

우리 업체들이 중국의 건설시장에 진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장벽으로 실제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다만,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기구가 용자 및 지원하는 건설 프로젝트에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업체 외에 지사가 있는 외국건설업체에게도 투명하게 입찰의 기회가 보장된다.

하지만, 설문 및 심층조사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은 입찰에서 규제가 별로 없는 국제기구(ADB, WB)가 지원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및 면담 업체 대부분은 입찰 경험이 없었고 오직 1개 업체만이 낙찰받아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ADB 및 WB가 지원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우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발주정보의 부족 및 소규모 공사, 낮은 단가를 지적하였다.

Table 17. Experience in joining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pporting construction project

Response	%	Freq.
Never	57.1	4
Have jointed bid, but not won	14.3	1
Have won a bid and joined	14.3	1
No information	14.3	1

나아가 건설기업들의 실제 사업 참여도 중요하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국제개발은행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계획에 포함된 조달계획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도 국제개발은행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업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 및 책임관리자들과 인적관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특히 판시를 중시하는 중국 문화를 고려할 때,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내 시공실적을 쌓을 수 있어, 향후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건설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애로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 여건변화에 따른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및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중국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중국건설시장 진출전략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여,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서는 정부조달시장이 제외되어 공공건설시장 참여가 불가하며,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수출유발계수, 국내유입유발계수, 해외건설유발계수를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와 원청합작 형태의 계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협상을 잘 활용해야 한다. WTO의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합작 요구조건이 포함되지 않고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 건설기업

들은 국제기구 사업입찰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내에서 유대 관계를 구축하고 실적을 쌓아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지 않은 제약으로 인해 조사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기업 가운데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하였다가 실패한 기업 또는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는 본인이 참여한 국토교통부(2015)의 『중국 건설 시장 진출 전략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입니다.

References

Do, T., Kim, M., and Choi, M. (2012). "An Analysis on Economic Effects of Overseas Construction by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8(3), pp. 25-39.

Han, J., Park, H., and Jang, H. (2013).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Competitive Evaluation Model in Oversea Construction Industr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4(2), pp. 12-21.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6). "Trends and implications on China infrastructure market," VIP REPORT 16-17.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2007). "Strategies going into China construction market,"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Jang, R., Yoo, B., Lee, Y., and Kim, J. (2009). "A Study on the Analyzing Risk Factors in Chinese Construction Projects using AHP - Focus on Korean CM Company,"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5(7), pp. 287-294.

Kim, M. (2012). "An Analysis on Economic Effects of Overseas Construction,"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73, pp. 271-281.

Lee, S., and Choi, J. (2010). "A Study on Risks in China's Foreign Invested Water BOT Projects,"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D*, 30(3D), pp. 295-302.

Lim, M. (2011). "Recent trend on distribu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 North-east China,"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2(23).

Liu, A., Lee, K., Lee, C. and Han, S. (2014). "Institutional Risk Factors of Chinese Construction Market in View of International Contractors,"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2014(10), pp. 1577-1578.

Liu, Y., Oh, J., Kim, J., and Huh, Y. (2015). "Risk Analysis and Responding Strategies in Tender Stage for Successful Construction Project in China,"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Journal*, 31(7) pp. 109-116.

Roh, S., Oh, J., Kim, H., and Lee, H. (2015). "Analysis of 2015 China provincial economic policy for New-norma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Yang, J. (2015). "Opening China's Construction Markets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Negotiations and Applications for Firm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6(6), pp. 92-100.

Yu, J. (2016). "Implications of Smart Cities in China,"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3(1), pp. 81-99.

Zhao, W. (2016). "The Project Exploitation Strategy of 'One Belt and One Road' of Korea Companies,"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2016(6), pp. 163-181.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면담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분석을 통해 한·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 등을 통해 중국내에서 유대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키워드 : 중국건설시장, 외상투자제도, 협력모델 개발, GPA협상
